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7호 【루게 제23009호】 주제 99 (2010)년 2월 26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단장과 중국인사들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월남공업상업부 부장인 부이 쉐인 쿠안장이 24일 오수흥 내각부총리에게 전달하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2월의 명절에 즈음

백두산 3대장군께 에빠도르 임바부라주 썬 미겔 테 이바라시에서 병예시민칭호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 에빠도르 임바부라주 썬 미겔 테 이바라시에서 병예시민칭호를 올리였다.

이러 참가자들의 열렬적인 박수 속에 병예시민증서가 고려의학조 단 단장에게 전달되었다.

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강화하여 자기의 존엄을 떨치고있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고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온 자랑스런 승리의 로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올해에 다시 한번 대박약을 일으키고서 통일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갈 조선군대와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11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중국인사들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월남공업상업부 부장인 부이 쉐인 쿠안장이 24일 오수흥 내각부총리에게 전달하였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 대고조의 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공동시설과업관철에 힘있게 고무추동

각지 당 조직들과 당일군들

각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올해공동시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모든 단위에서 첨단들과의 열풍을 새겨 각기 일어나는 데서 제기된 과업의 중요성을 심장으로 새기고 단계별목표를 바로세우도록 한 다음 그 실천을 확실하게 해나가도록 정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적 높이고자 정치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하고있다.

세계가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를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올바르게 찾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자 정치사업을 실시하고있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혁신

자강도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당장전 65톤을 맞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시설의 과업을 받들고 자강도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9월방직공장, 강계편직공장 등 어디에 가보아도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키는 일군들과 노동자들의 열띤 모습을 볼수 있다.

경제포도송골공장에서 과학기술자 곧 생산이라는 확고한 관념에 높은 기술혁신목표를 내세우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주공전선에 더 많은 전력을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

공동주공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각지 수력발전소들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보장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혁신의 불길을 높이고있다.

차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 데 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각지 수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은 수력주공물들에 대한 보수를 잘하고 발전설비관리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높은 효율운전을 보장하고있다.

량강도림업관리국에서

목표높이 세우고

공동시설과 공동호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당장전 65톤을 자랑한 노력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량강도림업관리국의 노동자들이 산지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목표높이 세우고 산림관리국들과 노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통나무생산실적은 날이 오르고있다.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강계, 만포, 최천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이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특파기자 공로혁



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장정철

백산해

특파기자 전철주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열의에 넘쳐

새 봄이 약동하는 2월의 청산별

농기계수리정비를 잘 하자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역사의 땅 청산리! 2월의 봄을 맞은 청산별이 붉다. 드넓은 청산별을 뒤덮을 듯 날아다니다 들어나는 시꺼먼 거름더미에도, 철을 앞당겨 번뜻하게 닦아놓은 모판자리를 마다에 생겨난 채, 복토무지들에도 올해농사에서 또다시 장훈을 부를 강서구역 3중3대 혁명붉은기 청산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열정이 비껴갔다.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

량을 정대로 꺼내는 청년들, 연방 떠나고 들어서는 트랙터, 딸기지행렬... 날씨는 사나와도 가슴마다 불덩이를 안고오는 청산리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해해 첫 전투로 1천여(1)해의 해를 늘리자고 강서구역 파내서 포전에 실어낸 제10작업반원들의 경쟁열의는 또 얼마나 높을까.

제6작업반 딸곡장과 모판자리에 가보면 《가루거름》, 《새》, 《영양토》 등 명찰을 써 붙인 비정량구리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올해농사에 실지 이바지할 수 있게 중농기구준비를 품어들어 하고있고 트랙터도 잘하여 얼마전에 진행된 중농기구전시회 및 부림소용평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9작업반원들, 거름더미의 높이자살터미의 높이라고 하면서 강서구역의 곳곳을 다니며 많은 진거름을 실어낸 제11, 8작업반원들... 혁신자대열은 늘어난 것이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구호말에 농장원들모두가 대혁신, 대비약의 창조자가 되었다. 비약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선구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강서구역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한 공농사실의 전투적 과업을 받들고 청산협동농장의 농사구역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진시키며 강서구역 책임 일꾼들의 제인 조직사업과 이신자적은 청산별이 날아날마다

이런 성실한 실농꾼들, 이런 미더운 일꾼들이 있어 청산별의 새해농사차별이 하루가 다르게 다그쳐지고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는 열열이상, 중농기구와 모판자재준비는 한두 일이상 앞당겨졌다.

무엇이 이런 혁신, 이런 비약을 안아왔는가. 청산리사람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청산리에 깃든 어버이수령년의 뜨거운 사랑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이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를 어찌 영광의 땅 청산리농민들이라 하겠습니까. 이 한숨이 그대로 한숨 거름이 되어서라도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청산별에 기여 이 대공을 안아올리다.》 그렇다. 백두산위인들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열렬한 보답의 마음, 주공전선을 지켜선 전조병의 영예를 빛내야 하려는 굳은 각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기계와 농업생산시설의 리용률과 가동률을 높이자면 그에 대한 수리정비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면 당의 뜻대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더우기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토지가 정리되어 포전규모가 커지고 트랙터들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잘 해야 한다.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잘 해야 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자면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앞당겨 해결해야 한다.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분발해나선 혁명농장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지향한 투쟁에 의하여 질 좋은 거름이 예년에 없이 많이 생산된 실정에는 트랙터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각기 농기계수리부담 일꾼들과 혁명농장일꾼들, 기계화초병들은 공동투쟁을 힘써서 새기고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성과 강의로써 농기계수리정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농기계수리를 맡은 각기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한 공동투쟁을 받들고 들끓는 사회주의혁명열에 기계화의 동음이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면 당의 뜻대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더우기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토지가 정리되어 포전규모가 커지고 트랙터들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잘 해야 한다.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잘 해야 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자면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앞당겨 해결해야 한다.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분발해나선 혁명농장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지향한 투쟁에 의하여 질 좋은 거름이 예년에 없이 많이 생산된 실정에는 트랙터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각기 농기계수리부담 일꾼들과 혁명농장일꾼들, 기계화초병들은 공동투쟁을 힘써서 새기고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성과 강의로써 농기계수리정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면 당의 뜻대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더우기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토지가 정리되어 포전규모가 커지고 트랙터들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잘 해야 한다.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잘 해야 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자면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앞당겨 해결해야 한다.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분발해나선 혁명농장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지향한 투쟁에 의하여 질 좋은 거름이 예년에 없이 많이 생산된 실정에는 트랙터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각기 농기계수리부담 일꾼들과 혁명농장일꾼들, 기계화초병들은 공동투쟁을 힘써서 새기고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성과 강의로써 농기계수리정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면 당의 뜻대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더우기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토지가 정리되어 포전규모가 커지고 트랙터들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잘 해야 한다.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잘 해야 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자면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앞당겨 해결해야 한다.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분발해나선 혁명농장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지향한 투쟁에 의하여 질 좋은 거름이 예년에 없이 많이 생산된 실정에는 트랙터들의 가동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각기 농기계수리부담 일꾼들과 혁명농장일꾼들, 기계화초병들은 공동투쟁을 힘써서 새기고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성과 강의로써 농기계수리정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문천시 고압협동농장에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유기질비료생산을 늘려

포전마다 질 좋은 거름을 동림군 청송협동농장에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거름을 많이 내야 땅을 걸고 지력을 높일수 있으며 안전하게 높은 수확을 벌 수 있습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거름을 많이 내야 땅을 걸고 지력을 높일수 있으며 안전하게 높은 수확을 벌 수 있습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거름을 많이 내야 땅을 걸고 지력을 높일수 있으며 안전하게 높은 수확을 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혁명열에 많은 거름을 실어낸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정영철 작음

토양조건을 따져 가며

속천군 사산농장에 들어서면 인차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포전은 물론 어느 집의 대문을 열어도 트랙에 여러 개의 거름무지들이 있다. 올해공농사실예 제1진 전투적과업을 받아안은 농장일꾼들은 조직사업에 보다 치밀한 관심을 기울여 거름생산에 큰 중적으로 내밀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농장원세대들에서도 매일과 같이 진거름을 생산하고 흙구이를 하였다. 분조장들은 다른 분조에 뒤질 세라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대공을 안아올리다.》

농장원세대들에서도 매일과 같이 진거름을 생산하고 흙구이를 하였다. 분조장들은 다른 분조에 뒤질 세라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총화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대공을 안아올리다.》

금속공장들에 더 많은 파철을

평안북도에서 많은 파철을 생산하고 집집순배물들을 수급하여 자기 집과 사무실 마당에 거름무지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뒤따라 농장의 모든 집마다, 분조들의 포전마다 이런 거름무지들이 수없이 생겨났다.

평안북도에서 많은 파철을 생산하고 집집순배물들을 수급하여 자기 집과 사무실 마당에 거름무지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뒤따라 농장의 모든 집마다, 분조들의 포전마다 이런 거름무지들이 수없이 생겨났다.

평안북도에서 많은 파철을 생산하고 집집순배물들을 수급하여 자기 집과 사무실 마당에 거름무지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뒤따라 농장의 모든 집마다, 분조들의 포전마다 이런 거름무지들이 수없이 생겨났다.

《올해에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뫼니뫼니해도 유기질비료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에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뫼니뫼니해도 유기질비료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에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뫼니뫼니해도 유기질비료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에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뫼니뫼니해도 유기질비료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에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뫼니뫼니해도 유기질비료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혁명전통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김정속 군 당 위원회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판철의 정신에 대한 내용으로 실효모임을 조직하여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판철의 정신에 대한 내용으로 실효모임을 조직하여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남강도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파들의 무모한 전쟁책동에 의하여 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여명을 포함한 1만 8 000 여명의 방대한 병력과 최신무장장비들이 집중 투입되며 남조선괴뢰 군단급, 합대사령부급, 비행단급부대와 민간부력까지 동원되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놓고 적들은 《년례적인 훈련》이니, 《방어》니하고있지만 그것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선행작전, 핵전쟁 연습이다.

호전파들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학교 《선제타격》 하겠다고 할뿐 아니라 세계 핵무기부대 호환전술훈련, 대규모 지상합동훈련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훈련을 광범적으로 벌려온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괴뢰 호전파들이야말로 긴장화와 대결을 추구하고서 신성한 우리 강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려는 전쟁광신자들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 놓았다.

우리는 도발자들에게 왜 조성된 오늘의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침략자들에게 의하여 반세기 사 쌓이고 쌓인 사투린 원한을 안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오늘날 이 땅에 화악대 풍기며 전쟁의 도화선을 불을 달고있는 현수줄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로 세차게

혁명전통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김정속 군 당 위원회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판철의 정신에 대한 내용으로 실효모임을 조직하여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판철의 정신에 대한 내용으로 실효모임을 조직하여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고조의 기상 높여 떨치며 트랙터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금성트랙터공장에서. 본사기자 작음

만민을 매혹시킨 위인중의 위인

날이 갈수록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민들의 그리움과 경모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쌓아올린 업적에 위대하고 그이께서 지닌 위인적 품모가 특출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인품으로부터 뛰어난 인품과 소탈한 성품, 위대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와 거룩한 영성은 력사가 밀찌기 알지 못하는 특출한 위인성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있습다.』

지난해 11월 23일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리는 타이신 《더 네이션》 기자와의 회견에서 1994년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절정을 만난 때를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김정일동지는 참으로 탁월하고 모던에 정통한 위대한 수령이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매우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계셨으며 어느 건물이 언제 건설된 무슨 건물인지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거니 어 없지 않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소탈하고 겸허한 품성을 지니셨으므로 하여 그이와의 담화도 잘되었다.』

카터리 말하면 우리 나라와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의 이전 대통령이다. 이전에 우리에게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있던 그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보고는

그이의 거룩한 인품과 넓은 도량,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만사에 대한 깊은 조예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해박한 지식, 뜨거운 인격에 완전히 반해버렸다. 카터는 위대한 수령님을 리성적이며 지혜로우신분, 실무에 능하신분,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시는분이라 칭양하였다.

그는 자기의 개인보좌관에게 김정일동지께 완전히 매혹되었으니 그이를 만나뵙는 첫 순간부터 이분이시아말로 평화애호적인분이라 칭찬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기자들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일동지는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하였던 3대통령들인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을 다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다. 김정일동지는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건국자들과 태양신을 다 합친것보다도 더 위대한 인간운명의 태양신이라는것을 나는 서슴없이 말한다.』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던 미국의 전 대통령까지도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칭송하는데 해라며 수령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민들의 호모심이라 더 말할 무엇하였는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을거나 그이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 전에 전하고 그의 특출한 위인성에 매혹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

보르프갈 전 대통령 고데스는 조선전쟁에서 마크오주은 보르프갈군 참모장으로 있을 때 자기가 느꼈던 소감을 이렇게 서술했다. 『당시 미국이 만든 조선전

쟁의 모든 작전계획들은 미국과 그 편에 선 서방나라의 국가수뇌들과 참모장들, 수많은 장관들이 여러차례 모여서 토의한 끝에 만들어진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성장군님께서는 그것을 단독으로 격파하시었다. 나는 이것을 내눈으로 보고 김정일성장군님이시말로 이 세상에 한분밖에 없는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도자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우리를 떠난 세계인민들은 해빛과도 같은 미소와 뜨거운 사랑, 숭고한 인품, 고결한 덕담으로 벗들은 물론이고 사상과 정견을 달리하는 서방정적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들어잡은 우리 수령님의 빛나는 생의 자욱자욱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본다.

프랑스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미테랑은 어느때인가 서방 수뇌자들의 참가자들앞에서 나는 이 자리에 모인 7개국 수뇌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김정일동지를 만나뵙은 특권을 지닌 사람이다.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국가수반이시였으며 2차 세계대전중부터 오늘까지 활동하여온 위인들중의 한분이시였다고 하였다.

아제도 오늘날도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는 것에하여 수령님을 경모하는 세계 각국 인사들중에는 오스트리아의 전 수상 크라이스키도 있다. 그는 입심시엔 정적이므로 알려진 사람은 없었다. 그는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당시 대통령 베건을 만나 큰 소감이 어번다고 묻는 기자들에게 『유치원생』을 만난 기분이라고 말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보도계의 화제거리로 되었다.

하지만 가네마루는 총이 아닌 대로로 위협해도 자기는 김정일동지앞에 다진 맹세를 저버릴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가장 절절한 위인으로 호모하고 따

로 대한 포부와 비범한 예지, 세련된 단력과 강의의 힘, 무한한 포용력과 완벽한 통솔력을 지니신 김정일동지의 품모와 기상의 상징이라 할수 있다.

천만민중을 하나로 묶어 세워 핵무기보다 더 강한은 사회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강령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만방에 과시하며 조선을 강성대국으로 이끄시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은 실로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것을 최대의 민족적극지와 자부심으로 간직하고있는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를 배두의 기상과 승기를 함몰에 지닌분이라 칭송하고 있다.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동지는 령도자로 모시고있기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랑성 100훈이 되는 2012년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게될것이다.

인디아 라만운모수출회사 사장인 프라제센드라 사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김정일동지의 인민위인의 사상을 구현하시어 조선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력을 다 하시어 인민의 령도자이시라고 칭송하고 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배두의 기상과 승기를 함몰에 지닌분이라 칭송하고 있다.

『조선의 김정일동지는 참으로 탁월하고 모던에 정통한 위대한 수령이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매우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계셨으며 어느 건물이 언제 건설된 무슨 건물인지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거니 어 없지 않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소탈하고 겸허한 품성을 지니셨으므로 하여 그이와의 담화도 잘되었다.』

카터리 말하면 우리 나라와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의 이전 대통령이다. 이전에 우리에게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있던 그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보고는

《조선에서 인민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넣는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중국의 『인민일보』가 올해공동사실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를 벌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평양주제 본사특파기자의 글을 실었다.

『인민일보』 2월 16일에는 《조선에서 인민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넣는다》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서 조선정부는 언제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매우 중시해왔으며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총비서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현재 조선인민은 2009년부터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를 벌려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경제적인 부분의 생산토대와 잠재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혁명전대교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인민공세를 벌리는것은 올해 조선정부는 총적인 투쟁방향이며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다.

조선 《로동신문》과 《조선인민》, 《청년전위》 3대신문은 올해 1월 1일에 발표한 공동사설 《당장전 65훈을 앞서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

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에서 2010년에 전당적, 전국각적 힘을 집중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공세를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선정부는 올해에 전국각적 힘을 집중하여 인민생활향상을 대대적으로 높여나간다.

경제업무부문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인민소비품의 질을 더욱 높이며 지방공업, 공작들을 계속 만부하로 돌리고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생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리게 된다.

농업부문에서는 종자혁명방침과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농업혁명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있다. 이 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이고 축산, 양어, 과일생산기계의 현대화, 효율화를 실현하게 된다.

조선정부는 또한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리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공업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19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차생 산

방글라데시에서 차생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나라이에서는 해마다 차생산량이 1.35%씩 늘어나고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60개의 차생산기지가 운영중이며 여기에서는 연간 5만 5 000 ~ 6만t의 차를 생산하고있다 한다.

18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환경보호사업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나라들이 환경보호에 힘을 넣고있다.

18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지역에서 환경보호면적이 120%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프존을 파괴하는 물질소방량이 85% 감소되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10월이래 계속된 가뭄로 피해를 입고있다.

가뭄로 4일현재 100만ha 이상의 밭이 심은 농작물이 못쓰게 되어 알곡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피해가 심한 곳은 남부과 중부지역이라고 한다.

나라이에서 가뭄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00만US\$에 달하였다 한다. 현지에서 구제사업이 진행되고있다.

메히프의 미초아칸주에서 최근 3일동안 계속된 폭우로 큰물과 홍수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5일 현재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1만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한 지에 나앉았다 한다. 정부에서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제조치를 취하고있다.

●모잠비크에서 지난해

자본주의 모면할수 없다

자본주의 계에서는 독점자들의 괴물

운추구와 경제위기가학, 전쟁정체현 등으로 실업자들에게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세금이 증대되고 국가에서 군사비가 늘어나며 각종 사회안이 범람함으로써 근로자들은 더욱더 생활상고를 겪고 있다.

특권층의 수입은 줄어가는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선이하에서 죽지 못하게 살아가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처할 집도 없게 되며 메뚜기같이 더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어 배부르 할 나이에 배우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어린이들이 부지기수이다.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리윤정쟁과 악육강시의 생존론이 지배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는것이 증명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는 빈발공부에서 지나지 않는것이다.

『복지』라는 단어도 근로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개선할수 없고 자본주의 제도자체를 위기에서 구원할수 없다.

리 학 남

자본주의 사회의 말갈한 현실

경제 침체

일본에서 수많은 기업체들이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5일 이 나라 교도통신이 전국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데 따르면 조사에 참가한 기업체들중 약 90%가 경영형편이 침체 상태에 있거나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밝혔다 한다.

악기제작업체인 『야마하』회사는 12일 조사자를 인용하여 지난해 기업체에서 입은 손실액이 216억 5 000만 엔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 맥주생산 업체들인 『삿보로』회사와 『기원』회사에서는 리윤이 그 전해에 비해 각각 40.6%, 38.7% 감소되었다 한다.

실업자 증대

영국에서 지난해 4.4분기 실업자수가 총 246만명에 달하였다. 이 기간 장기실업자수는 3만 7 000명 더 늘어나 66만 3 000명에 이르렀다 한다.

17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범죄 성행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14일 총기류범죄사건이 일어나 주민들속에서 커다란 공포와 불안이 조성되었다.

지난 3명의 무장한 범죄자가 주에 있는 한레베당에 뛰어들어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2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다 한다.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2명의 강도가 한 상점에 뛰어들어 물건들을 강탈해가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튀르키예에서 어린이 유괴범죄가 성행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16일 이 나라 경찰청국은 조사자료에 인용하여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유괴된 어린이들의 수가 1 078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증대된것이라고 한다.

기만적인 《복지정책》으로는 위기를 모면할수 없다

경제 위기가 여전히 자본주의 세계를 휘둘러놓고있다. 가뜰이나 가쁜숨을 몰아쉬던 자본주의세계는 구렁렁이 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제조라고 하면 대기업체들도 경영난에 시달릴수 없게 파산되고 있다. 물가는 사정없이 뛰여오르고 실업자대군이 거리를 메우고있으며 빈곤자들이 늘어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의 곳곳에서 오늘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몰아온 그릇된 경제정책과 사회제도 대한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들이 높아가고있다.

바빠있는 자본주의나라 정책들은 사대수습을 위한 회의를 가진다. 대책을 세운다. 어떤가 하면서 소동을 피우고있다. 그러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요즘 자본주의나라 정책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복지정책》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다.

그들은 그 무슨 《자본주의적인 경제지표》와 《복지정책》을 잘 결합하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치지를 개선》할수 있다는 소리를 외워대고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을 위한 자금전환과 자금을 늘린다. 어떤가 하며 부상을 피우고있다. 이것은 한갓 기만이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한것이다.

미국이 비렬한 책동을 비난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2일 한 TV방송국의 회견에서 미국이 비렬한 책동을 실천해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이 이란을 지역 《우려대상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여론을 내몰고있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을 지역 나라들속에서 《이란공포증》을 조성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으로 략인하였다.

그는 그 어디에도 더는 발붙일수 없게 된 미국의 페르시아만지역에 대한 저들의 간섭을 모를 정정해해보려고 이러한 술책을 꾸미고있다고 까밝히고 이란은 이웃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의 공군부령증강책동

이스라엘이 최근 공군부령증강책동에 열을 넣어온것이 이 무인기들은 이란을 포함한 페르시아지역 상공을 활동지역으로 삼고있다 한다.

본사기자

행위를 규탄

러하는 자기 나라에 압력을 가하려는 음흉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까밝혔다.

그는 에파드르은행들은 국제적인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하고있다고 하면서 이 명단에 진짜 올라야 할 나라들은 다음해인 비법적인 자금류동이 가장 위험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라고 주장하였다.

행위를 규탄

에파드르대통령 라파엘 포메가 20일 한 회의에서 서방의 오만한 행위를 규탄하였다.

최근 서방이 에파드르를 이른바 《비법적인 자금류동행위와 투쟁에서 비협조적인 나라》들의 명단에 올린것과 관련하여 그는 여기에 이란과의 관계발전을 장